

## <아파트>

# 그릇된 불管理는 二重으로 疲労

主婦 안 순 자

<서울 서대문구 서울맨션아파트>

해마다 겨울철이되면 불 때문에 걱정이다. 석유나 연탄이나 떨감 마련에도 우리네 주부들은 힘드는 판국인데 자칫하면 불관리를 잘 못해 화재가 생길지도 모르니 이중으로 피로한 셈이다. 뭐 여름이나 봄이라고 화재가 안 생기는건 아니지만 특히 겨울엔 난방을 해야하기 때문에 화재가 생길 확률이 크다. 우선 널리 쓰이는 연탄에 대해 얘기해 보자.

연탄은 문제성(예를들면 가스 중독)이 크면서도 연료중 가격이 비교적 싸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온돌식으로 된 터라 가장 많이 애용된다. 그런만큼 화재발생요인 중 큰 범위를 차지하게 된다.

연탄에 의한 화재는 불을 갈고 채 다 타지 않은 연탄을 그냥 방치해 둔 데서 오는 것 같다. 눈에 보이기에는 마치 다 탄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운이 나쁘면 화재를 발생케 할지도 모르니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꺼진 것 같더라도 물을 한번 뿌리고 버림이 안전하지 않을까? 제까짓게 타봤자 연탄이지 설마 불까지 날까 라는 순간적인 방심이 커다란 재앙을 낳을지 모르니 미리 조심해야겠다.

그 집 하나에만의 피해로 그치면 모르겠지만 괜한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면 그건 서로가 피로운 일이다. 피해를 줘서 피롭고 받아서 피롭고 하다. 한 번은 이런 일을 봤다.

친구네 아파트에 놀러갔다가 늦어져 밤에 나오는 길인데 쓰레기통에서 빨간 불길이 확확번져 놀랜적이 있다. 마침 관리인이 봤길래 망정이지 그게 무슨 변인가 말이다. 아파트 쓰레기통은 몇층이 계속 통하기 때문에 특히 더 위험하다.

「프로판·가스」는 주로 음식점, 다방, 가정에서는 부엌에서 쓰인다. 어느 집에서나 그러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가스」통을 베란다에 따로 격리를 시켜 「가스」통이 불옆에 있을때 화재가 생길 경우를 예방하고 있다. 항상 「가스」통의 마개를 사용 안할 경우엔 꼭꼭 잠그고 「가스」레인지의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몇년 전 배달원이 가스통을 가져왔을 때의 일이다. 괜히 가스가 새면 어쩌나 못 믿어워 “아저씨, 혹시 이통 새는 건 아니겠죠?” 몇번씩이나 묻곤 했더니 확인한다며 성냥불을 갖다대는 게 아닌가? 도대체 어찌자는 거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머리끝이 쭈뼛하다. 가스가 안 샀길래 다행이었지 샀다면 그 젊은 나이에 무슨 불상사를 당했을런지.

가스가 새는 건 비눗물로 칠해 보면 안다고 한다. 안 새면 멀쩡하겠고 새면 거품이 일겠고 난 같은 모르지만 대강 그런 것 같다. 그런 건 배달원이 할 일이겠고 우린 그저 왔다갔다 꼭꼭 잠그는 일이다. 애기들이 장난 못하게 미리 막아야 할 건 당연한 일이고.

석유 난로나 석유콘로가 성능이 나쁜 건 냄새가 고약해 좀 곤란스럽지만 대체로 사용하기가 편해 애용하고 있다. 기름값이 주책없이 뛰어들라 우리 집에서는 아주 추울 경우만 살짝 틀어 놓지만, 이 잠시동안이라도 걱정스러운 게 뒤따른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셋이라 방에서 뛰고치고 박고 그러다 재수없이 난로를 걸어찬다거나 위로 쓰러진다거나 하면 이전 영락 없는 일이라 안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난로를 켤 때는 애들에게 경고를 한다. 석유 난로 1m 후방에서 뛰어놀라던가 뭐 그런거 말이다. 그리고 석유통은 안전하게 베란다 구석에 놓고 있다. 불과하는 거리가 멀므로 누가 일부러 성냥을 그어대지 않는 한 화재의 염려는 없다.

난로 앞이나 석유통 있는 곳에 혹시 모르므로 절대 성냥을 안 둔다. 석유 콘로의 화재 예방은 석유 난로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음은 전기 제품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기 제품중 화재의 염려가 있는 것은 전기 난로, 전기 콘로, 다리미들이 있다. 전기 난로는 보통 가정에서는 전기료가 너무 비싸게 먹히므로 별로 사용을 안 한다. 하지만 쓰는 가정들도 있으므로 화재 예방에 대해 생각해 봄직하다.

전기 난로나 전기 콘로는 너무 오래 사용하면 합선이라든가 누전이 생길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할 때 잠시 켜지 안전하겠다. 그리고 주위에 화인이 될만한 요소가 없으면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사실 석유 제품이나 연탄불보다 전기 제품이 안전하고 편리하지만 아직 우리 나라는 맘대로 전기 제품을 사용할 만한 여건이 못되므

로 되도록이면 안 쓰는게 좋겠다.

서로 서로 절약해서 그만한 전기량을 공장으로도 돌려 산업 개발에 보다 더 이용할 수 있게함이 좋겠다. 다리미는 다리다가 잠깐 전화벨이나 초인종이 울려 눌러둔 채로 나갔다가 잊어버렸을 때 화재가 생긴다. 옷이 타고 자칫하면 화재도 생기고 편이나 위험하다.

부엌 처녀나 주부들은 아무리 잠깐이라도 불일이 있을 때에는 안전하게 전기 코드를 빼고 불일을 봐야겠다. 그래야 잠깐이라도 안심을 하고 일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이 외에도 담배불, 성냥불 등 화재가 생길 요인들이 있으나 특별히 주의할 만한 것은 없다.

왜냐면 어린 아이들도 다 알만한 간단한 것이니까. 그렇더라도 구태여 얘기하자면 담배 꽂초는 꼭 비벼서 끄고 함부로 버리지 말며 성냥불 역시 던지지 말고 꺼서 버리고 그러면 될 것 같다. 아이들이 간혹 성냥 장난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꼼꼼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위험하므로 장난을 못하게 해야겠다.

인제 대중 화재 요인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선 거의 얘기한 것 같다. 누구나 다 이 정도의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자주 발생하니 야단이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느 경우에도, 아는 것을 실제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화재 예방에 관한 것에서도 마찬가지다. 미리 예방을 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요즘 같이 건조한 날씨엔 큰 불이 일어날 확율이 크므로 더욱 더 조심해서 재난을 막도록 하자.

(끝)